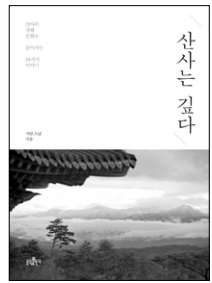


# 40여년 산사 생활 34개 주제로 정리



**산사는 깊다**  
지안 스님 지음  
불광 펌  
1만5천원

전국 각 사찰마다 템플스테이가 다양해지면서 산사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어떤 이는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또 다른 번뇌를 씻기 위해 찾는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산사일까? 스님들이 수행하는 절집에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삶의 윤회유를 제공하며 변화시키는 강한 힘이 산속 스님들의 생활에 담겨 있다.

하지만 산사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기는 녹록지 않다.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원리로 채워져 있어서다. 그래서 누군가 그 뜻을 우리 일상 언어로 설명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짚어 주기 전에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계종 총림 승가대학원 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조계종 고시위원장을 맡아 후학 양성에 힘쓰는 지안 스님의 책은 이런 점에서 유의할 것 같다.

산사의 생활 문화에 관해 짚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40여 년 절집 생활에 대해 반조를 거듭해 정리한 키워드 34가지 이야기에 산사 생활의 정수를 담았다. 기침에서 취침으로 이어지는 산사의 하루와, 출가부터 다비까지 건너가는 스님의 일생을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냈다.

출가에 대한 설명에는 자신의 출가서 지냈던 마음과 목적담을 통해 출가의 의미를 들려준다.

용맹정진을 말할 때는 은사 스님이 금강산서 목숨 걸고 정진에 임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전해준다. 그래서 이 책을 접하고 나면 왜 절집 하루가 그렇게 짜여 있고 스님의 삶이 그렇게 진행되는지 고개가 끄덕여 진다.

마치 산사서 하루를, 또 스님으로 한평생을 사는 듯 말이다. 산사는 수행을 위해 특별한

## 산사의 하루, 출가서 다비까지 소개 경험서 우리나라의 설명 이해 도와 직접 체험하는 듯 생생한 사진 61컷

마련된 곳이다.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일과를 모두 수행이라 보면 된다.

예불이나 기도, 경전 공부와 참선은 물론이고, 공양 할 때도 음식이 수행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수행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어느 암자 대들보에서는 “밤에 꿈 꾸는 사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쓰여 있는 글이 발견되기도 했다. 잠 잘 때조차 수행을 멈추지 말라는 이 글에서 수행에 임하는 스님들의 결연한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산사에는 ‘대중이 소를 잡으면 소를 잡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어느 한 사람 뜻이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면 여러 사람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산사에는 언제나 대중의 뜻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대중공사가 자리 잡았다. 그래서 육식을 금하는 우리 산사에서 대중의 뜻이라면 소라도 잡아야 한다는 뼈 있는 우



산사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기는 녹록지 않다. 사진은 해인사 강원의 새벽 강경 모습. 사진제공=불광출판사

스갯소리가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 스님들은 90일씩 1년에 두 번 일정한 처소에 모여 출입을 자제하고 정진에 몰두한다. 이를 ‘안거’라 하며 일반적으로는 수행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저자는 이것만큼 중요한 안거의 의미가 “그 기간 동안 인간의 그릇된 업행이 멈추는 데 있다.”고 본다. 안거 기간 동안 몸과 말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절제돼 인간성이 순화된다는 뜻이다.

산사 생활 핵심을 순도 높게 보여주는 안거는 우리가 왜 산사에 끌리는지를 보여준다. 누구든 일단 산사에 들어오면 바깥세상과 분리되는 경험을 한다. 수행을 위해 마련된 계율로 돌아가는 산사에선 바깥세상에서 하던 행동 습관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 계율에 따라 몸과 말과 마음이 자연스레 절제되

고, 그렇게 욕망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우리는 잊고 있던 순수한 자신을 만난다.

우리가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는 데는 고요한 산사 전각 기둥에 기대서 저 멀리 산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풍경 소리를 들으며 처마 끝에 걸린 구름 한 조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새벽 산등성이로 피어오르는 안개,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단아한 석탑, 법당에 모신 부처님과 산사를 수놓는 연등의 물결 등을 포착한 61컷의 사진이 이 책에 실려 있다. 그 울림이 깊어, 사진을 보는 순간 사진 속 멈춤의 시간 속으로 빠져든다.

절집을 찾은 이들이 점차 느는 요즘, 34가지 키워드를 통해 산사서 하루를 보내듯 절집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해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경생상외’에 담긴 동양미학 정수

한 권으로 읽는 동양미학

한린더 지음 | 이찬훈 번역 | 이학사 펌  
2만8천원



미란 무엇인가? 미적 가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는 미학 사상은 세계관과 인생관 등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화권만큼이나 많다. 이 책에서는 중국 미학을 중심으로 동양 미학의 세계관을 일목요연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서양 미학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동양 미학 특유의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전하고 있다.

‘깊은 뜻은 형상 너머에 있다’라는 이 책 부제는 저자가 원제목으로 삼았던 ‘경생상외(境生象外)’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옮긴 것이다.

‘경생상외’는 당나라 유유석이 한 말인데,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의경(意境)은 상 밖에서 생겨난다”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나 한국 같은 동양 전통 예술에서는 예술작품의 목적을 눈앞에 보이는 객관적 대상이나 세계의 미를 정확하고 아름답게 그려내는 데 두지 않았다.

그보다는 일정한 형상을 매개로 어떤 대상이 품는 기운이나 정신을 그리는 것, 대상 속에서 작가가 파악한 우주와 인생의 진리와 실상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동양 예술의 성패는 작가가 형상을 넘어 깊은 뜻을 얼마나 훌륭하게 표현했는지, 감상자가 그 뜻을 얼마나 잘 읽어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책은 ‘경생상외’라는 개념을 통해 이런 동양 미학의 핵심을 함축적으로 담아내면서 그와 연관된 동양 미학의 특징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중국 미학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각 유파의 미학 사상을 탐구해나갈 때 길라잡이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줄 것이다. 모두 중국 미학 전문가들의 저작으로서 각기 나름대로의 특징과 장

점을 갖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중국 미학자 중 한 사람인 한린더(韓林德)의 이 책은 중국 미학을 매우 체계적이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덕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무엇보다도 중국 미학의 범주와 개념 그리고 특징을 매우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 책은 중국 미학의 이런 특징을 형성하는 배경으로 작용한 중국의 철학 사상이나 인생관 및 세계관을 상세히 분석해 준다. 나아가 이 책은 중국 미학의 여러 갈래 중 가장 대표적인 ‘유가’와 ‘도가’ 그리고 ‘선불교’의 미학을 서로 비교해 그것들이 각기 갖는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중국 미학이 어떤 정신적 배경 아래서 형성돼 공통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 것들을 공유하면서도 그 내부에서 어떤 분화를 형성하는지를 대안히 체계적으로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이 책은 중국 미학

## 동양 미학 세계관 체계적 정리 중국 미학 범주와 개념 재정립 중국 불교 선종의 미학도 조명

의 전모를 조망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에서 다루는 예술 분야는 실로 방대하다. 이 책에서는 그림, 글씨, 음악, 무용, 악무, 희곡, 연극, 경극 등 무한한 동양 예술 세계 속에 담긴 사상과 세계관이 일목요연하게 펼쳐진다.

많은 실례와 인용문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동양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 또한 이 책의 또 다른 덕목이다. 이 책에 담긴 방대한 예술작품 목록과 인용문들은 동양 예술과 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마지막 4장은 중국 미학의 3대 유파라 할 수 있는 ‘유가’와 ‘도가’ 그리고 ‘불교(선종)’의 미학을 다루고 있다. 큰 틀에서는 중국 미학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각론에서는 각자 특색도 갖고 있는 3대 유파의 미학 사상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은 3대 유파 각각에 대해 관심 갖는 사람들이 각 유파의 미학 사상을 탐구해나갈 때 길라잡이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 인류를 살리는 생태학 개론서

불온한 생태학

이브르세 지음 | 배영란 옮김 | 사계절 펌  
1만8800원



이 책서 제시하는 탈성장론은 인류 멸종이라는 최악의 환경 재난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최선이자 단 하나의 종착지다.

탈성장은 기본적으로 현대 물질문명을 버리고 조금씩 과거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이 책의 저자는 학자들의 주장을 빌어 기존의 산업사회를 탈성장의 검소한 사회로 변모시키기 위해 성장에 대한 맹신을 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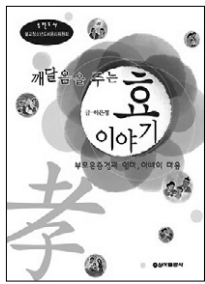
고 생산 관계 구조를 재편하며, 토지의 재분배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탈성장 사회의 미래는 성장제일주의에 몰든 지금의 우리에게 쉽지 않은 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역 공동체가 기반이 된 탈성장 사회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줄 것이다.

저명한 환경운동가인 저자는 세계 정상들이 모인 회의에서 얼마나 허울상의 대책만 논의되고 있는지 날카롭게 지적하고 복잡한 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환경 정책들을 제안한다. 책에서 다루고 있는 논의들이 근본적이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운동가이자 정책가로서의 면모가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김주일 기자

## 청소년 눈높이 맞춘 효이야기

깨달음을 주는 효이야기

이은정 지음 | 신아출판사 펌 | 9천원



효행(孝行).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해 이 땅에 존재해 온 인류의 중요한 덕목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효’를 강조했다. 백행의 근본은 ‘효’라고 할 정도로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함을 갖는 것은 기본 도리로 여겼다.

(깨달음을 주는 효 이야기)는 이처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주옥같은 이야기이다. 한

자 한 자 마음에 새기듯 읽어보면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책에는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자식을 위해 굶어일도 마다 않는 하늘같은 은혜의 사례들이 소개돼 있다. 그래서 이 책은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서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깨우쳐 주기 위한 생활 지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 책은 〈부모은중경〉과 효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읽기 쉽게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엄마, 아빠의 마음 글도 중간 중간 삽입돼 있어 읽으면서 부모님의 큰 사랑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의 내용과 부모님 사랑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 좋은 자녀 교육서이다. 김주일 기자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http://www.shcandle.com)

###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지발약쑥양초**

① 약쑥초 90cm ×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 f ×34cm ③ 약쑥초 돈타래 5.6 f ×27cm  
 ④ 약쑥초 밀대 4.7 f ×25cm ⑤ 약쑥초 1호 5.9 f ×18cm ⑥ 약쑥초 2호 5.9 f ×14cm ⑦ 약쑥초 3호 4.7 f ×13cm ⑧ 약쑥초 4호 4.7 f ×10cm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 f ×10cm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 f ×13cm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 f ×14cm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 f ×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약쑥초 돈타래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호랑이, 음)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공호랑이, 음)

**한뫼밀납양초**

① 밀납초 90cm ×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 f ×34cm ③ 밀납초 돈타래 5.6 f ×27cm  
 ④ 밀납초 밀대 4.7 f ×25cm ⑤ 밀납초 1호 5.9 f ×18cm ⑥ 밀납초 2호 5.9 f ×14cm ⑦ 밀납초 3호 4.7 f ×13cm ⑧ 밀납초 4호 4.7 f ×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 f ×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 f ×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 f ×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 f ×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래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호랑이, 음)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공호랑이, 음)

**도자기 인동**

**인동용 파리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한타 주황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